

문화전당, 아시아 문화원조 거점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 보고

극장 없는 전남 19개 시·군에 작은 영화관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문화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남지역 19곳을 포함해 극장이 없는 전국 시·군은 「작은 영화관」(소규모 상설 영화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청소년체계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견립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전당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개발도상국 공적원조) 거점기관으로 임종우 성된다. 애초 목표였던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하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문화원조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는 전당이 개관하는 오는 2015년 이후 ODA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업무보고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를 위해 2014년까지 유치원 등 1300개소에 예술강사를 파

견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위해서는 관람료 할인 제도인 「문화페스」를 도입하고, 어르신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또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산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시급한 분야부터 창작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 후원(메세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예술나루 10만 그루」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콘텐츠산업이다.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취임 100일 맞은 노회용 동구청장

“인권 선진 자치구 만들겠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구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노회용 광주시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부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지역 인권수준을 측정하는 인권지표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 청장은 구도심 재생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안에 월남지구·학동3구역 재개발사업과 동명2구역 주거환경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 산수1구역 새재개발구역 내 한 주택을 입대, 직접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충장축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아시아 최고의 축



무등산~문화전당 연계 문화관광코스 개발할것

충장축제 亞최고축제로 올 가을엔 K-POP 공연

제로 만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일환으로 올 가을 차례로 충장축제와 문화전당 일대에서 K-POP 공연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

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산 유원지를 연계한 문화 관광코스를 개발해 구경발전을 이끄는 축으로 삼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그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소외 계층의 생활안정을 돋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 성장과 동시에 분배에도 역점을 둘 요량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3 희망-FIVE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 청장은 “동구의 경우 도심공동화가 심한데, 구민들에게 문화 중심도시로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주민들의 고용증대 효과를 높이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건설 허가기준 강화

광주시는 28일 시민특별보좌관에 김영집(50)씨를 선정했다.



김 특보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경력과 함께 대통령자문국과 군현발전위원회 교육국장(2003~2005),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클러스터추진단장(2006~2008),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운영위원장(2009~2010), (주)인포마스터 기업주 치의 센터장(2011~2012), 민주당 중앙당 정치개혁추진위원회국장(2012) 등을 지냈다.

시는 또 기존 중앙·중외공원 등 광역권 균형공원 외에 마륵·월산·사직공원 등 16개 산지형 균형공원과 제석산 등 3개 보전녹지지역을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까지를 종상향 금지구역으로 주

가했다.

시는 특히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광역권 균형공원, 산지형 균형공원, 보전녹지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과 종상향을 할 수 없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중증(15층 이하, 높이 45m 이하)으로 건축하도록 했다.

시는 이외에도 사업구역내 나대지 비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나대지 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 10%까지 차감해 나대지가 과도하게 포함된 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억제하도록 했다.

시는 또 기존 중앙·중외공원 등 광역권 균형공원 외에 마륵·월산·사직공원 등 16개 산지형 균형공원과 제석산 등 3개 보전녹지지역을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까지를 종상향 금지구역으로 주

“광주·전남 무대로 큰 정치 할 것”

광주서 변호사 활동 천정배 전 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 일축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믿음직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호남에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천 전 의원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인 정치적 계획은 없지만, 마음의 고향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을 만나 소통하며 광주·전남지역을 무대로 한 큰 틀의 정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2번의 대선 패배로 크게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과 함께 5년 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시장 출마하고 도지사 출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살고, 5년 뒤 정권

그는 “경쟁하고 싸우고 해야하긴 하지만, 토론을 통해 상호 간 인정하고 포용하는 시스템 및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쇄신 과제”라고 지적했다.

천 전 의원은 호남 정치 복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민주당 독점 구도가 계속되면서 점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호남에서 우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매우 도덕적이고, 개혁적 이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 분명한 국가비전과 정책을 내세우는 개혁 정치가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 전 의원은 다음달 8일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다.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 것은 16년 만이다. 광주에는 매주 사흘 가량 머물며 지역민들을 만날 생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광주 ACE Fair추진위원장 정동채 전 장관 위촉

광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13 광주 ACE Fair (Asia Contents & Entertainment Fair)’ 추진위원회에 정동채 전 장관 위촉된다.”고 28일 밝혔다. ‘2013 광주 ACE Fair’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기 회의를 갖고 전시구성과 국내외 유력 기업체 및 바이어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국내외 370개 업체, 35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상가건물전분■ ◆10억부터 50억이상◆ 급마을 본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추하 및 매입가능)

◆상속부동산/지분부동산◆ ◆모든부동산 출장가능!

매매

* 서구 치평동 이마트 4층상가로변 대지800.3세대(260평) 건 3,047제곱미터(922평) 지하1층/지상5층/ 대출금(24억) / 매매가138억 보증금(5억2천만)/ 월세 270만원/판매비도 16.5%

* 동구 동명동 조선대후문 인근 6층고시원 엘리베이터 대지236제곱미터(71.5평)/도로(14평) 빙67개 건727제곱미터(221평)/대출(2억7천만) 매매가14억5천만/ 실무자금 8억8천만/실수익률 10.6%

* 북구 문흥동 6차선대로변지점 1층/지상7층 4층집합건물 건727제곱미터(분양350평) 병원/한의원/독서실 짐질방가능 대출금(6억)/ 매매가16억5천만/실투자금 5천만 매입후 분할임대시 수익률 000%

* 북구 문흥동 6차선대로변지점 1층/지상7층 4층집합건물 건727제곱미터(분양350평) 병원/한의원/독서실 짐질방가능 대출금(6억)/ 매매가16억5천만/실투자금 5천만 매입후 분할임대시 수익률 000%

임대

*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건330제곱미터(100평) 보3억/월2200만

* 서구 치평동 이마트 4층 시무실 건494.49제곱미터(170평)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화면 투자회원모집(약간명)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상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매매전문

★전대정문 1분 량 14개 월수익 500만원 매기6억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량 14개(상기1개) 월수익 500 매기5억9천

★전대정문 1분 량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익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융 2억5)

★전대정문 1분 량 21개(주택전환가능, 엘리베이터,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750 매기8억8천(보5천 융 2억5천)

★상촌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익 500만 매기5억9천

★상촌동 원룸 16개 월수익 600만 매기6억9천

상촌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 끝길간도로접 820㎡ 매기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수완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분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도서실·모든업종가능

수완지구 1층 분양 59㎡

매기3억6천(보3천 융10만)

수완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3억3천(보3천 융10만)

독서실 금 임대

수완지구 3층세대 모아빌 APT후문

2층 91석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비액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주구 수원동(LG전자빌)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 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29억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74억

▷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1952㎡ 건평203㎡ 감정가49억3천만 최저가3억